

해외출장노트 (중국 창춘)

부서 : 도시외교연구센터

과제코드 :2018-PR-43

출장자 : 이민규

작성일 : 2018년 9월 17일

게시요망일 : 2018년 9월 20일

제목 : [해외출장노트] 지린성 포함 동북 3성의 주요 문제와 관련 정책 파악

1. 출장목적

- 본 출장은 동북 3성 특히 지린성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환경 등 다섯 분야 주요 문제와 관련 정책 자료를 파악·수집하여, 장래 서울-지린성 교류협력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
- 창춘시 주요 기관과 지린대학교를 방문하여 지린성 발전계획과 서울시 - 지린성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함

2. 출장개요

지역	방문기관	업무수행내용
창춘		• 서울시 대표단과 지린성 성장 등 고위층 회담 및 만찬
	• 중한산업원	• 중한산업원 방문 • 창춘시 부시장 등 주요인사 회담 및 오찬
	• 위만항공박물관 • 창춘성향규획전람관 • 창춘세계조작공원 • 지린대학교	• 창춘시 주요 관광 산업 현장 시찰 • 창춘시 도시규획 현황 및 향후 계획 조사 • 창춘시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 인사 면담 및 오찬 • 지린대학교 공공외교학원 방문, 연구 현황 파악
	• 지린대학교	•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 방문 및 협력 방안 논의 • 지린대학교 행정학원 교수 면담, 한반도 정세와 서울시와 지린성 간 협력 방안 논의 • 남북관계 관련 인터뷰

3. 출장내용

3.1 지린성 성장 등 고위층 회담 및 협력방안 논의

- 주요 참석자
 - 서울시 대표단: 윤준병 행정1부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, 이민규
 - 지린성 대표단: 징진하이(景俊海) 성장 등 지린성 관계자

- 주요 내용
 - 지린성의 주요 산업 및 도시발전 계획 공유
 - : 일대일로(一帶一路) 사업 적극 참여
 - : 창지투(長吉圖) 지역 개발계획 적극 추진
 - : 경제 구조 전환 및 체질 개선 계획
 - : 창춘시, 동북아 지역(區域性) 중심도시 발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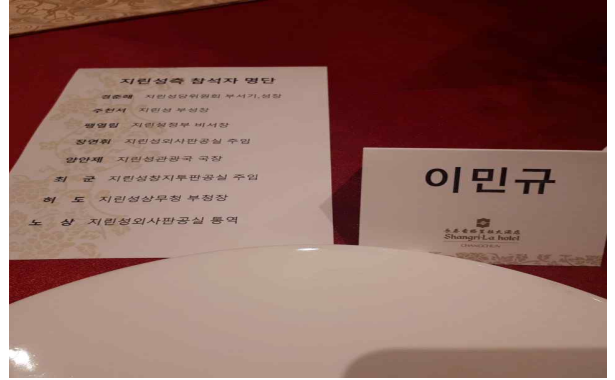
 - 한국-지린성의 교류 현황
 - : 중한국제합작시범구 운영
 - :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 한계

 - 향후 서울시-지린성 교류협력 방향
 - : 자동차와 부품, 장비제조, 과학기술교육, 의료건강, 관광 등 분야에서 경제무역 교류와 기업 간 협력 강화 필요
 - : 한국 대기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요망
 - : 2019년 우호도시 협정 체결

- 관련 보도
 - ‘징진하이 중국 지린성 성장-윤준병 서울시 부시장 회담, 한중 협력 논의’, 봉황망코리아, <http://chinafocus.co.kr/view.php?no=24842>



<사진1>서울시 대표단-지린성 성정부 회담 장면



<사진2> 지린성 참석자 명단

3.2 중한 산업원 방문

○ 주요 참석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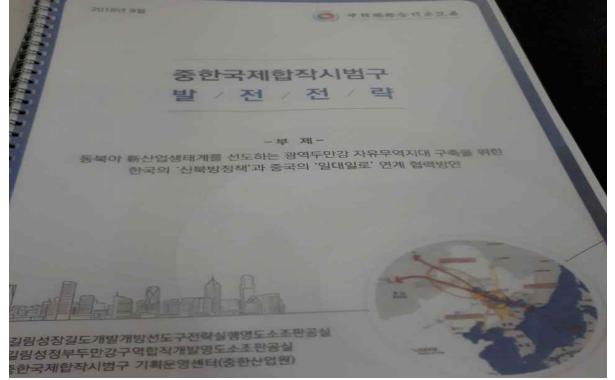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 대표단: 윤준병 행정1부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, 이민규
- 중한산업원: 김내상 대표 등 관계자

○ 주요 내용

- 한중 경제 교류 현황과 시사점
 - : outframe 방식이 아닌 inframe 방식 투자 필요
 - : 지적재산권 문제 등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필요
- 중한국제합작시범구 발전 전략
 - : 중한국제합작시범구는 한국 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사업을 연계하는데 있어 주요한 축인 동북진흥정책 및 창지투 전략의 핵심 실행 프로젝트임. 한중 산업체인 융합을 통해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동북아경제산업공동체 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
 - : 상무부의 자유무역항 정책을 활용하는 일구일항(一区一港) 모델 구축, 국제무역을 통한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, 동북지역과 광역두만강 국가 협력의 교두보로서 확대 발전 공간 확보 등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함



<사진3> 중한산업원 방문 단체사진



<사진4> 중한국제합작시범구 발전전략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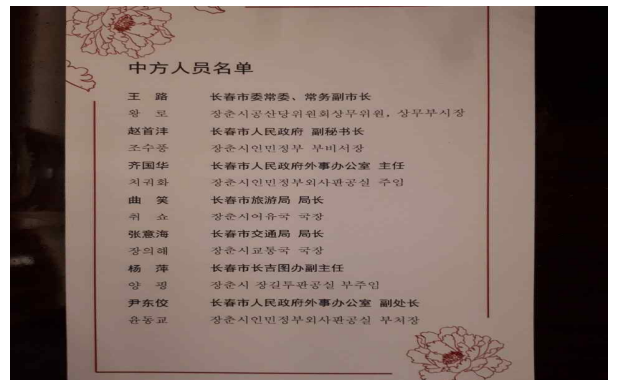
3.3 창춘시 부시장 등 고위급 회담 및 협력방안 논의

- 주요 참석자
 - 서울시 대표단: 윤준병 행정1부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, 이민규
 - 창춘시: 왕루(王路) 상무부시장 등 관계자

- 주요 내용
 - 창춘시 주요 특징 및 현황
 - : 2050년까지 동북아 지역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함
 - : 창춘시의 7대 미래 발전 방향 (국제 자동차 도시, 녹색식품 도시, 과학 교육문화 도시, 조각 도시, 철도교통 도시, 산림 도시, 영화 도시)
 - 서울시-창춘시 교류협력 관계 구축
 - : 서울시와 지린성 간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과 강화 과정에서 창춘(성회) 시의 역할 강조



<사진5> 창춘시 고위급 관계자와의 단체사진



<사진6> 창춘시 참석자 명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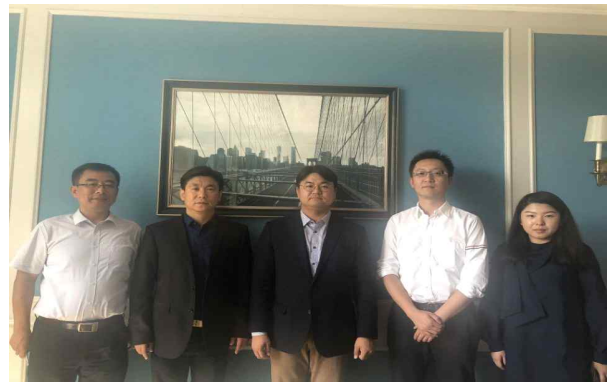
3.4 위만황궁박물관 및 창춘시 외사판공실 관계자 면담

- 주요 참석자
 - 이민규
 - 창춘시: 어우쉬(欧硕) 창춘시 외사판공실 부주임 등 관계자

- 주요 내용
 - 창춘시 주요 관광 현황
 - : 대표적인 AAAAA급 관광지 - 창춘징웨탄국가삼림공원(长春净月潭国家森林公园), 위만황궁박물관(为满皇宫博物院), 창춘세계조각공원(长春世界雕塑公园), 창잉스지청(长影世纪城) 등
 - : 다른 도시에 비해 역사 및 문화 방면의 유적지가 부족함
 - 위만황궁박물관 현황
 - : 전국중점문화보호단지, 전국애국주의교육시범기지, 국가1급박물관 등
 - : 창춘시가 지린성을 대신하여 관리하면서 대대적인 내·외부 정비 사업을 진행하였고, 이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
 - :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음
 - 한국-창춘시 관광 협력 방안
 - : 창춘시를 출발점으로 하는 여행 노선 개발 필요(창춘-연길-단동 등)



<사진7> 위만황궁박물관 입구



<사진8> 창춘시 외사판공실 관계자와의 단체사진

3.5 창춘성향규획전람관 및 창춘세계조각공원 방문

- 일시: 2018년 9월 11일(화)
- 장소: 창춘성향규획전람관, 창춘세계조각공원
- 주요 참석자
 - 이민규
 - 창춘시: 진후(金虎) 창춘시 외사판공실 영사처 담당자
- 주요 내용
 - 창춘성향규획전람관
 - : 2012년 시공하여 2016년 완성
 - : 창춘시 도시규획과 발전의 역사, 현황, 미래상을 전시하고 있음
 - : 창춘시는 단계별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 10가지 정책으로 ‘푸른 물과 하늘’(碧水蓝天), 교통시스템(交通体系), 시정시설(市政设施), 문화도시(文化名城), 산림도시(森林城), 도시재생(旧城提升), 신구건설(新区建设), 주택보장(住房保障), 아름다운 향촌(美丽乡村), 녹색건축(绿色建筑) 등이 제시됨
 - 창춘세계조각공원
 - : 창춘이 ‘조각도시’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공원
 - : 매년 창춘국제조각작품초대전(长春国际雕塑作品邀请展), 3년 마다 창춘세계조각대회(长春世界雕塑大会)를 개최하면서,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‘조각도시’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음



<사진9> 창춘성향규획전람관



<사진10> 창춘세계조각공원 진후와 함께

3.6 지린대학교 공공외교학원 방문

- 주요 참석자
 - 이민규
 - 우옌페이(吴雁飞) 지린대학교 공공외교학원 조교수

- 주요 내용
 - 지린성의 주요 사회분야 문제
 - : 현재 지린성은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와 더딘 경제 구조 전환으로 인재 유출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
 - : 인구 노령화 현상에 맞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함
 - :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고 있고, 지린성의 물가를 감안하였을 때 소득 수준은 나쁘지 않지만, 빈부격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
 - : 농촌 인구의 성진 지역 시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음



<사진11> 지린대학교 공공외교학원



<사진12> 지린대학교 공공외교학원

3.7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, 행정학원 방문

- 장소: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, 행정학원
- 주요 참석자
 - 이민규
 - 위샤오(于萧)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원장, 장후이즈(张惠智) 지린대 조선한국연구소 소장, 왕성(王生) 행정학원 교수 등

○ 주요 내용

- 서울시와 지린성 교류협력 방안

- : 북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(서울시 포함)과 지린성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힘들
- : 지린성 대외 경제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류 문제. 대련항을 이용할 경우 물류 비용이 매우 높음
- :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로 나진항과 천진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, 혹은 남북한 간 철도가 개통될 경우 지린성과의 경제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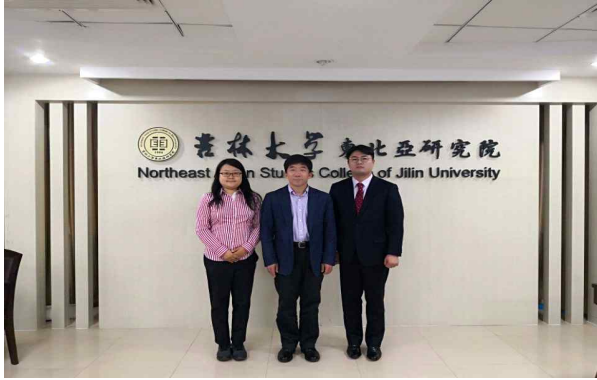
- 한반도 정세 현황과 특징

- :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지지하며,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개혁개방을 기대하고 있음.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라, 이를 지지하기 위함임. 북한의 9.9절 때 언론보도와 달리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지 않은 것 역시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
- : 미중관계의 틀에서 남북관계를 보는 것 보다, 남북 간 교류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, 미국의 지나친 비핵화 강조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오히려 방해함
- : 한국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함

- 한중관계 현황 및 전망

- : 1992년 한중관계의 각종 지표들은 한중관계가 좋았을 때 양국 모두 특히 한국에게 큰 이익을 주었음을 잘 보여줌.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게 있어 '기회'이지 '위협'이 아님
- : 한국 국내 정치적 성향(진보, 보수)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큼, 미중 간 경쟁구도 속에서 '친미반중' 경향의 형성은 결국엔 한국에 불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임
- : 사드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혹은 견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정부의 친미적 의사결정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제한하게 될 것임
- : 한중 간 제2, 3의 사드배치 이슈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양국 간 '위기관리'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- 서울연구원-지린성 동북아연구원 MOU 체결 합의



<사진13> 지린대학교 동북아연구원
관계자 단체사진



<사진14> 지린대학교 조선한국연구소
소장과 함께

2. 시사점

- 지린성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발전, 특히 경제구조 전환 및 체질 개선으로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지린성과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
- 지린성은 한국의 대기업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고, 한국은 중국 내 투자에서 지적재산권 등 제도적 보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
-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이고, 지린성은 한반도 정세 개선과 남북 간 경험 재개를 지역발전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공통된 인식 형성을 위한 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가 필요
- 지린성은 창지투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창지투 개발에 한국(서울시)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연구가 필요
- 한중 양국 모두 노령화라는 공통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노령화 현황과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필요
- 한국과 서울시의 도시화 경험을 지린성(지린성은 농업도시이자, 성진화를 적극 추진 중임)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
- 지린대 동북아연구원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교와 밀접한 학술 교류를

진행하고 있음.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-지린대-김일성종합대학 간의 3자 학술교류 방안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

자료 제공 및 문의처:
도시외교연구센터
이민규 부연구위원
(02-2149-1121)